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에게 2015년 상황(IS)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2015. 10. 25.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세계 3위 규모로 파병한 한국 등  
전 세계 40개국이 가담한  
이라크 전쟁** 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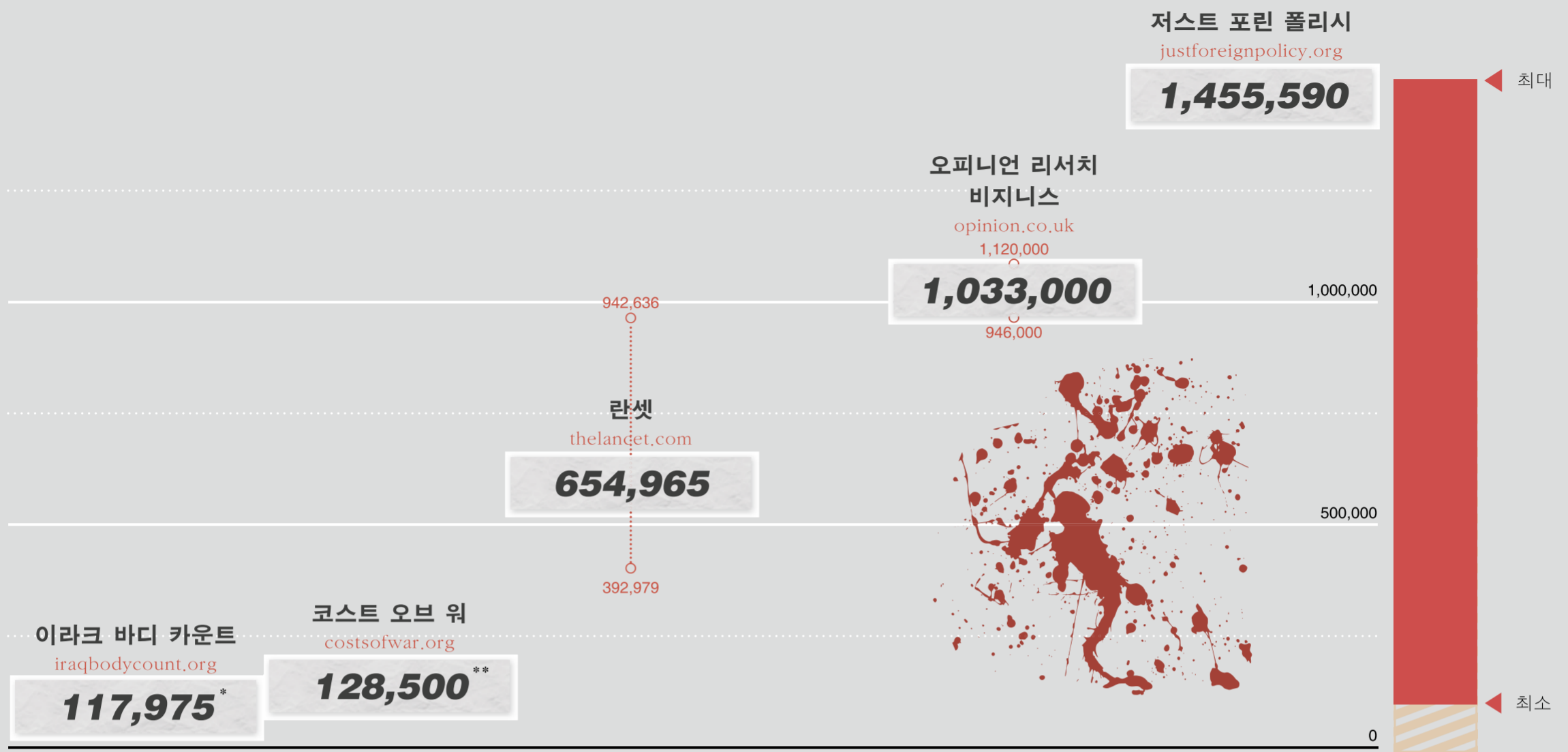
# 이 전쟁의 명분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 2004,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004, 9·11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 최소 112,017명 최대 122,438명 사이의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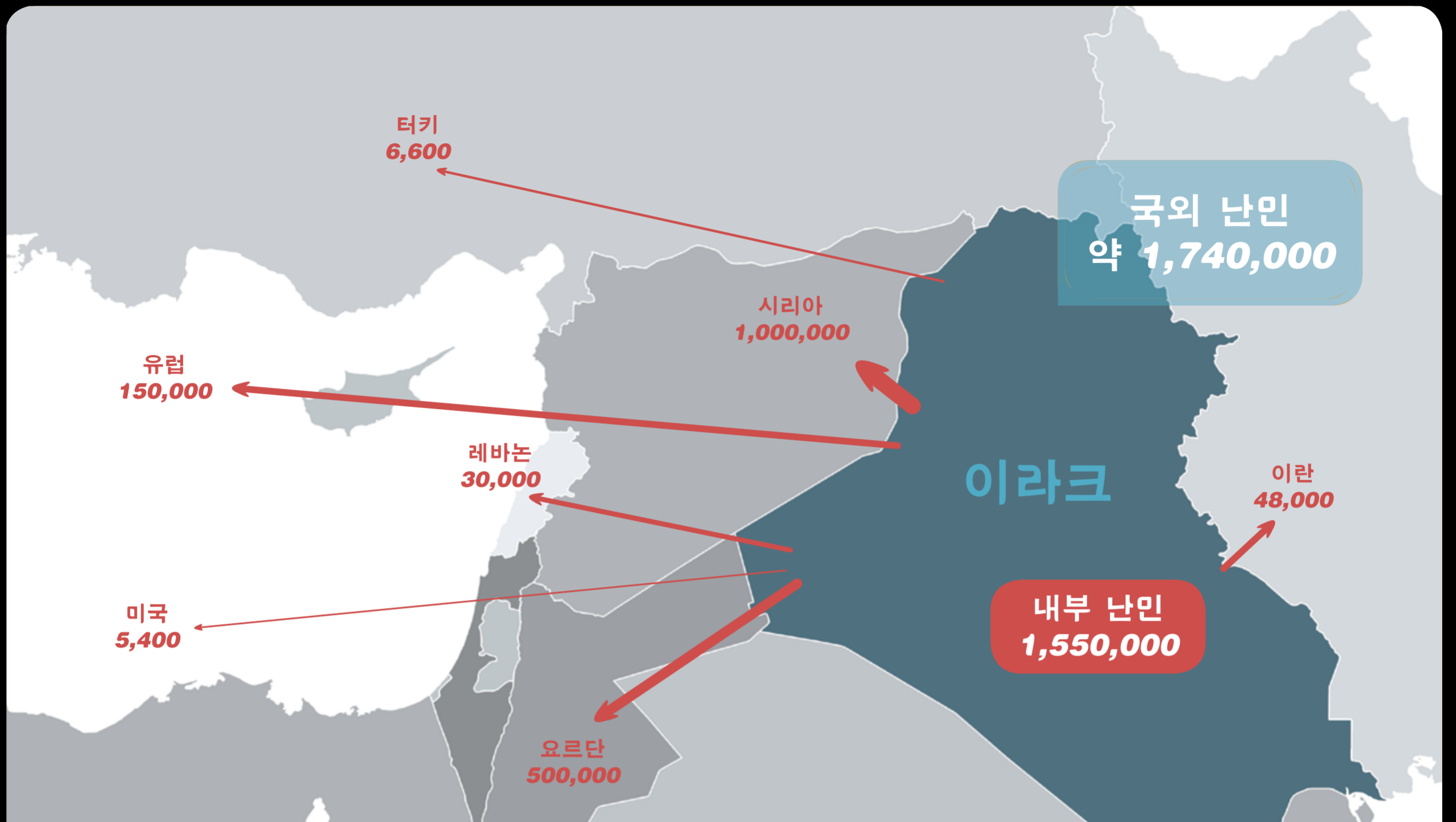
\*\* 최소 123,000명 최대 134,000명 사이의 중간값

이라크 바디 카운트, 2013 / 코스트 오브 워(브라운 대학교), 2013 / 란셋, 2006

오피니언 리서치 비지니스, 2007 / 저스트 포린 폴리시, 2013

## 전쟁이 남긴 것

**10년간 민간인 사망자  
최소 11만 명에서  
최대 145만 명**



전쟁이 남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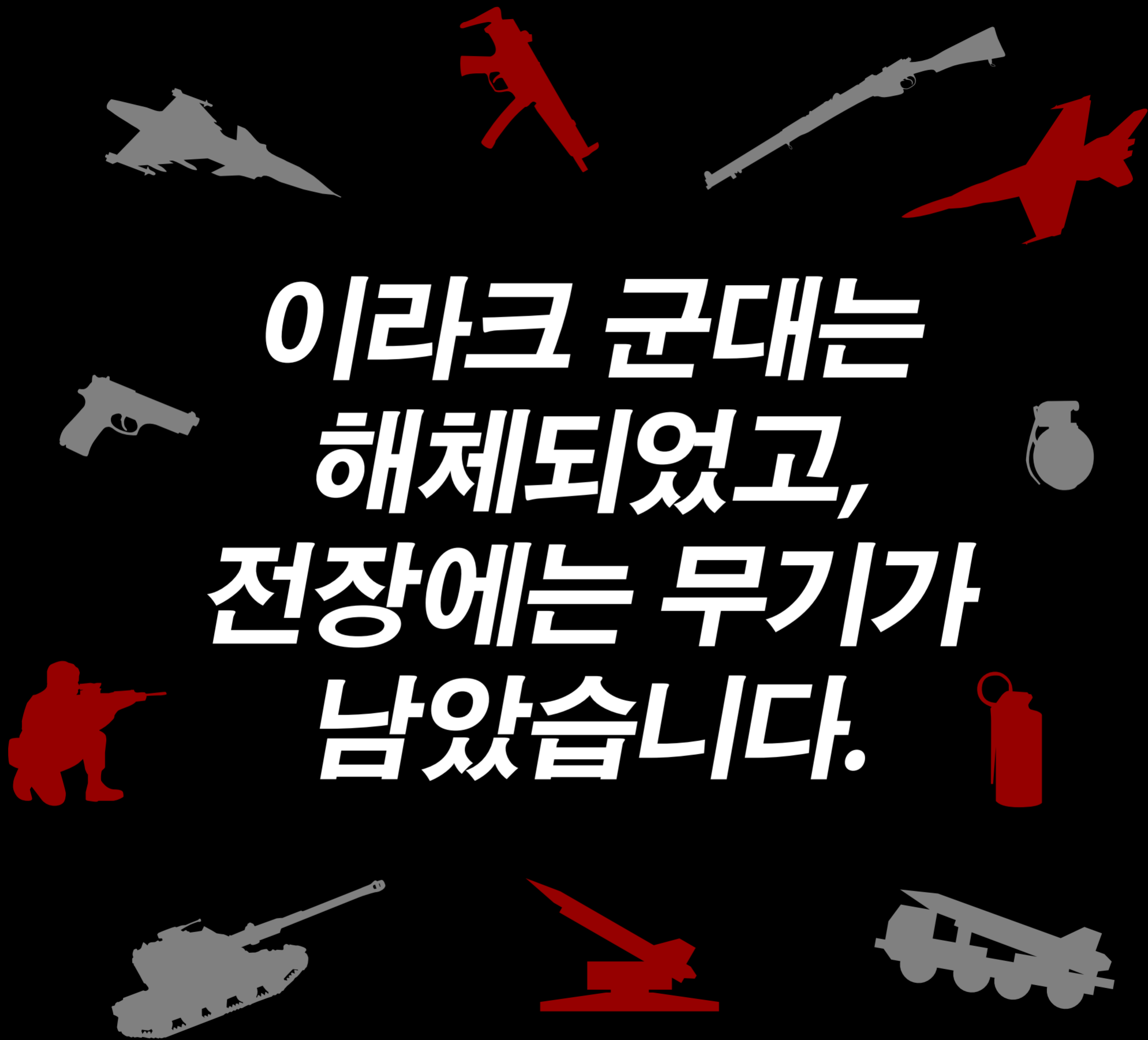
**난민 약 174만 명**  
**국내 실향민 약 155만 명**

- <Costs of War>,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 2013

총리는 시아파,  
국회의장은 수니파,  
대통령은 쿠르드족...

침공세력이 재편한  
이라크에서 심화된  
종파 간 **분열과 갈등**

**이라크 군대는  
해체되었고,  
전장에는 무기가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IS(이슬람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라크 평화재건을  
내걸고 파병했던,**

**한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 국군은 세계 속에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해외파병 이야기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의  
선전과 달리,  
해외 파병은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V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전 & 아프간전 파병**

**V '원전에 군대 끼워팔기'  
상업적 목적으로 군대를 운용한  
UAE 파병**

**V 군대보다는 민간전문구호인력이  
필요한 재난지역 파병**

**V 그외 기타 파병**

이 모든 위험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더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해외파견법안은  
각종 위험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법사위 위원

트위터

페이스북

이한성

@lee\_han\_sung

@leehansung

홍일표

@HongIP

@HONG.ILPYO

노철래

@Roh\_Chul\_Rae

@RohChulRae

김진태

@jtkim1013

@jtkim1013

전해철

@HaeC\_J

@HaecheorJeon

이춘석

@lcs1747

@chunseog.i

서영교

@seoyoungkyo

@youngkyone

임내현

@nhlim52

@nhlim52